

>>>> AI 발생과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중요성

AI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 줄였다



지난 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무사히 넘긴 본과 직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4월 1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시작된 AI 발병소식은 건잡을 수 없이 전국을 누비며 급기야는 서울시내 광진구 자연학습장의 조류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국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우리아이가 동물원 조류사육장 철조망을 만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대목에선 할 말을 잊었다. 아마도 시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마스크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전체가 들끓고 AI 관련 산업은 끄끖 얼어붙었다.

우리 시는 예로부터 농축산업이 발달해왔고 축산업은 현재도 안성시 농업총생산액의 53%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작목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에 대해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2002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약 100일간의 전투를 방불케 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바 있고, 지난해 초에도 시가 발생하여 47일간의 시련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농가 방역대책에 참고가 될까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 광 겹

경기도 안성시청 축산산림과 과장



긴박했던 초동긴급방역 24시

금년에는 4월초 예기치 않았던 국내 AI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역당국과 농가를 긴장시키더니 급기야는 평택지역까지 발생지역이 확대되면서 초긴장 상태가 되었다. AI가 일단 발생되면 가장 곤혹을 치루는 것이 공무원이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 살처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 비상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과거 살처분 현장의 전투적인 상황을 경험한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소식은 달갑지 않았다.

첫 발생후 한 달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대로 종식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소용없이 5월 3일 밤 11시경 우리 시 토종닭 농장에서 AI의심축 신고가 들어왔다. 황금연휴와 관계없이 축산과 직원들은 상황근무 중이었고, 방역담당자는 낮에 브루셀라병 감염농장이 있어 어렵사리 90두의 살처분 작업으로 이미 지쳐있던 참이었다.

긴급 출동한 연구소 측에 의해 가검물 채취와 간이진단이 이루어지고 자정을 넘긴 2시반경엔 경기도로부터 “고병원성 확실”과 “살처분 조치” 통보를 받았다. 담당공무원은 철야 작업을 통해 방역대 설정과 살처분 실시계획을 마무리했다. 축산과 직원들은 새벽 2시경 보낸 문자를 보는 즉시 속속 출근하여 6시엔 전직원이 비상출근하였고, 9시경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대응매뉴얼에 의하여 유관기관과 장비물자 동원업체에도 비상연락되어 오전 중에 살처분 인력 200여명과 장비 물자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오후부터 발생농장과 500m 이내 두 농장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실시되었다.



탈진에 가까울 정도로 고된 작업 끝에 발생농장은 당일 밤 11시경,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 인근 두 농장은 자정 무렵 살처분 완료보고가 들어왔다. 이로써 의심축 신고 24시간 내에 발생농장의 감염가축은 물론 인근농장의 가축까지도 예방적 매몰처리가 완료된 것이다. 일련의 이러한 신속한 대처는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AI가 확산될 경우 입게 될 피해를 참여자 모두가 함께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AI 발생이 주는 교훈 ◆

AI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44개국에서 5천여건이나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6년 처음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AI는 전염력이 강하여 농장이 감염되면 단시일에 집단 폐사하는 가축에게겐 무서운 전염병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발병 즉시 농장 전체를 살처분하여 전염원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 발병사례는 없으며 발병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AI 발생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규모는 엄청나다.

우리 시의 경우 AI가 발생한 2농장에선 7만여수의 닭과 오리 등이 매몰처리 되었고 위험지

역(3Km이내)으로 분류된 8개 농장에서 사육 중 이던 12만여수의 닭과 오리 등이 억울한 매몰처분을 받았으며, 주변 14농가에서는 몇 마리씩 기르던 닭까지 모조리 매몰 처분을 받았다. 경제지역(10km이내)으로 분류된 41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207만여수의 닭과 오리가 이동제한에 묶여 유통시장과 농가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위험지역과 경제지역에는 소독장비를 갖춘 14개소의 이동 통제초소가 운영되고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도 하루 252명에 달했다.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위해 지출된 예산도 엄청나다. 예방적 살처분에 지급된 보상금이 23억여 원, 살처분 작업과 통제초소 운영 등 긴급방역 대책에 지출한 경비가 6억4천여만원이나 된다. 또한 각종 제한조치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던 농가를 위해 지원된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도 537억여원이나 되었다.

이것은 방역대책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이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과 경비를 지출한 시군이 상당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농촌경제원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6,32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재난에 노출되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당부의 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AI가 가져다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리가 의식을 함께해야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장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최근의 발생사례 대부분이 노후화된 임대농장이나 간이축사 등 환경이 불량한 축사였다. 깨끗한 환경은 AI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와 같은 사업이 전국적인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둘째, AI를 바로 알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AI 관련 보도가 회를 거듭하자 국민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듯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시민 단체장 60여명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AI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도 했었다. AI는 새에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이다. 청결유지와 소독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오염된 축산물은 유통될 수 없으며, 특히 조리된 음식을 통해선 전염이 불가능하다.

셋째, 상시방역 체제를 갖추고, 긴급방역 매뉴얼을 점검하자.



농가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방역의 인식을 가지고 농장 출입시설을 점검하고 예찰과 주기적인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유사시 긴급방역조치를 위해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물론 인접시군과의 공조시스템도 평소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시군 경계지역 방역활동은 협력 체제를 통해 경비 절약과 방역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긴급물자 동원체제도 항상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만 더 실천에 옮겨도 AI 같은 전염병은 막을 수 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다시 AI가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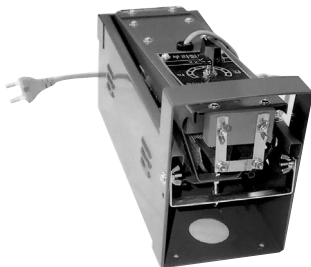


리를 들지도 모른다. 과거 AI가 가져다 준 교훈을 마음속에 그리며 사육환경과 방역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질병 없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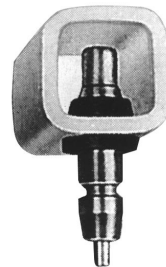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7 - 743 - 6887